

# 濟州市議會會議錄

第 22 回

開會式  
濟州市議會

日 時：西紀 1959年 6月 1日 上午 10時 00分

場 所：濟州市議會 議事堂

## 第22回 濟州市議會 開會式 節次

1. 開 式
2. 國民儀禮
3. 式 辭(議長)
4. 萬歲三唱(市長)
5. 閉 會

### < 式 辭 要 旨 >

오늘 議員同志 여러분과 더불어 6日 定期議會를 開會함에 있어 몇가지 生覺하는 바를 말씀드리게 됨을 기쁘게 여기는 同時에 한편 哀情함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回顧컨데 不肖 本議員이 就任 以來 무슨 緣故인지 昨年 10月에 徐相欽議員의 一身土 形便으로 因해서 開會中에 辭職願을 處理하게 되었고, 다시 今般 副議長으로 在任時 議會 運營에 盡力과 功勞가 많으신 姜成俊議員에 關해서도 議員 同志 여러분의 周知하는 事實이 理由로 萬不得已 閉會中인 지난 5月 25日자로 辭任 許可를 하게 된 것을 서글프게

생각함과 同時에 이로 因하여 關員 인채 議會를 갖게 됨을 마음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러한 心情은 不肖 이사람 뿐만 아니라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도 꼭 같은 心情으로 本會議에서 處理못한 點을 諒解해 주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로 因해서 今會期中에서는 副議長을 補選해야 하겠고 補選에 있어서는 議員 同志께서 慎重을 期하실줄 믿어지는 바입니다마는 向間에서 말하는 派閥的인 面을 止揚하고 自治法의 精神에 立脚하여 어디까지나 議會運營의 圓滑과 正大性을 期할수 있도록 同志愛로써 화기애애

리에 좋은 結果가 맺어지도록 懇曲히 付託하는 바입니다.

또한 今會期는 決算會議인 만큼 重且大함은 警言을 要치 않은 바이며, 이밖에 1959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비롯해서 條例改正案, 財産取得 및 處分案件이 執行機關으로 부터 提議되어 있는 것으로 이 많은 案件을 審議處理함에 있어 30日間の 會期라 할지라도 그 餘暇가 없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이 모든 案件을 處理함에 있어서는 輕重을 莫論하고 언제나 各己見地와 意見이 다르니 만큼 往往 私心에 흐를 事例가 있으나 이러한 點은 議員 또는 執行機關, 相互間에 充分한 協助와 雅量이 不足하므로써 惹起되는 것으로 思料되오니 만큼 우리들은 恒常 大爲的 見地에서 私心を 버리고 公心으로 相互間 緊密한 協助와 너그러운 雅量을 베풀어 互讓의 精神에서 正確 敏速한 案件處理의 態勢로 今會期에 臨하여 有終의 美를 거두어 市民의 福利增進에 努力하여 주실 것을 懇切히 付託드리며 盟誓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今般 會議는 新廳舍에서 開會될 것으로 期待되었으나 工事未盡 其他 事情으로 市에서 開會하게 된 것을 遺憾으로 여기면서 以上 式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西紀 1959年度 6月 1日

濟州市議會

議長 金榮浩